**WPI Profile 정확한 카멜레온 : 리얼리스트**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느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주어진 상황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면서 인정받고, 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안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을 잘 믿는지 본인 생각에 확신을 잘 가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남이 나를 믿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집단 내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는 보람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쉽게 상처받고 마음도 몰라준다고 서운해 합니다.

**현실의 지배적인 상황에 맞추기**

일상적으로 현실의 지배적인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 하며, 순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듯 하나 눈치에 의한 수용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카멜레온처럼 상황 적응을 합니다..

인간관계나 일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관습이나 규범에 충실하려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남들에 비해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논리에 충실하며, 현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들의 주된 성향**

한국 사회의 30-40%를 리얼리스트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논리와 틀에 충실하면서 대세를 찾고, 또 그것에 맞추려 합니다. 자신의 일이나 인간관계를 항상 상황의 논리에 맞추고,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특정 인물이나 과제에 강한 열정이나 믿음으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행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실을 유지하고, 정해진 틀이나 규범,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일상적이며 규범에 맞는 일은 무리없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변화는 이들을 힘들게 하므로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대세나 규범, 틀이 없을 때, 혼란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속하는 사회적 범주는 개인의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사회적 범주와 관련하여 변화해야 할 일 외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예술적 감수성이란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악이나 예술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함**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엮이게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보통 타인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려 하고, 남이 생각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말이 없는 듯 하지만 참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손해 보거나 희생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잘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이들이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은 자신의 조상이나 자신의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영웅적 인물의 자랑스러움을 통해 대리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직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감정적이 됨**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시하고, 또 대세에 따르려는 리얼리스트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현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적이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이런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감정적이 될 때에는 일상적인 모습과 극적으로 다른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괴팍한 성향,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감정적이 될 때, 우울하고 어두운 성향을 드러냅니다. 또는 상황을 감내하고 견디려는 자책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을 희생자나 피해자로 지각합니다. 자기 문제는 늘 남이 해결해 주는 것이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비교적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리정서에 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자존심을 내세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듯한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 남자라면, 자폐적 성향 또는 과도한 남성성의 마초적인 성향을 보입니다.